

최근 10년간 9급 공무원 국어시험 출제 경향과 개선 방안 모색

A Study on Trends in the Korean Language Examination for Public Officials(Grade 9) over the Past Decade and Proposals for its Improvement

신호림**

국문요약 본고는 공무원 9급 국어시험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지난 10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어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출제된 총 23개 기출 시험 460문항이다.

10년간의 기출문제에서 '지식형 문제와 사고형 문제 비율 검토'와 '사고형 문제 내에서의 세부 유형 검토'를 수행했다. 세부 유형의 경우 이해 영역, 추론 영역, 비판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출문제에 제시된 '지문의 소재'와 '물음' 또한 분석 대상으로 삼아 그 양상과 유형을 파악했다. 그 결과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이런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9급 공무원 국어시험의 체제가 변화하는 출제 기조와 사회적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에서부터 기인했다. 사회적 비판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2018년부터 점점 사고형 문제의 비율은 증가했지만, 그에 따라 이해, 추론, 비판 영역의 균형 문제나 지문의 소재 다양화 또는 물음의 정형화된 방식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체재인 '말하기/듣기/쓰기/읽기'에서 '이해능력', '추론능력', '비판능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세 개의 능력을 체제의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출제의 영역을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체제의 전환에 따라 각 영역별 문항 수 비율 조정과 지문 소재의 다양화, '물음'의 정형화 등을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9급 공무원 시험의 정체성은 '국어'에 대한 역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암기력이 아닌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본언어능력'과 '문학'에 대한 이해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핵심어 9급 공무원, 국어시험, 출제 경향, 개선 방안, 사고력, 지문, 물음

- 차례**
1. 서론
 2. 10년간 9급 공무원 국어시험 출제 경향
 3. 9급 공무원 국어시험의 개선 방안
 4. 결론

1. 서론

본고는 공무원 9급 국어시험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지난 10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함으로써 그 출제 경향을 탐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기반에 두고 향후 공무원 9급 국어시험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공무원 9급 시험은 2013년에 한 번의 개편 과정을 거

* 이 논문은 2024년 5월 11일(토)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2024년 한국 연구원 춘계 학술대회: 한국 공직 시험의 문화사"에서 발표한 글일 수 있음. 정·보완한 것이다. 유익한 논평을 통해 도움을 주신 조현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국립안동대학교 인문예술대학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쳤다.¹ 이런 변화의 기저에는 9급 공무원 시험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응시율을 높여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었으나, 자칫 형평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험의 업무 연계성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이 동시에 지적되었다.² 다시 말해, 개편 이후 시험 과목이 업무에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 측정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시험 과목의 선정에 있어서 그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³

흥미로운 점은 이런 비판적 관점이 현직 공무원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실제 업무를 경험한 공무원들은 공개경쟁시험 과목의 실용성을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⁴ 이는 시험 과목이 ‘중요도’와 ‘활용도’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공적 가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 결과적으로 2013년의 9급 공무원 시험 개편은 시험 내용의 타당성 결여와 이로 인한 전문성 저하, 직렬에 따라 필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합격이 용이한 과목을 선택

하는 수험생의 전략적 행위 발생,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고졸자 공무원 채용 확대 정책의 실패 등으로 귀결된 것처럼 보인다.⁶

공무원 9급 국어시험은 2013년을 기점으로 필수 과목이 재편되는 과정에서도 영어와 한국사와 함께 필수 과목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필수 과목으로 남은 국어시험도 공무원의 직업문식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이루어지는데, 국어시험이 이들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⁷ 이는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심층 조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다.⁸ 우리나라의 공직 구조가 연공 중심의 계급제에서 성과 중심의 직위분류제로 무게중심이 옮겨져 있는 상황에서, ‘조직에 적합한 사람(right person)’을 선발하는 데 필요한 시험으로서 국어시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⁹

국어시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수험생과 언론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이른바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면서 단순 지식을 묻는 암기형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¹⁰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1 개편 과정에 대한 정책적 공감과 갈등에 대해서는 박동희·김영아, “정책공감”과 사회경제계층: 2013년 9급 공무원 진입장벽 완화정책에 대한 “인지적 정책공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5-1, 한국정책학회, 2016을 참고할 수 있다.

2 박영원, 「9급 공무원 공채 시험과목 변경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369, 국회입법조사처, 2012.

3 김승태, 『공무원 채용시험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인사위원회, 2007. 이혁우와 이재완은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혁우, 「공무원 시험문제에 대한 타당성 분석: 2021년(국가직, 지방직), 2022년(국가직) 9급 필기시험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1, 한국행정학회, 2022; 이재완, 「9급 공무원 필기시험 문제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개선방안: 2022년(국가직, 지방직)시험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3-1, 한국행정학회, 2023.

4 이는 지방공무원 시험이든 국가공무원 시험이든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백형배·유동상·강인호, 「지방공무원 시험의 실용성(實用性)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5-3,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강인호·유동상·백형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과목의 實用性에 관한 연구: 7급 및 9급 일반직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평화학회연구』 14-1, 한국평화학회, 2013.

5 김형성·황성원, 「공무원 채용시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5-2, 한국인사행정학회, 2016. 김형성과 황성원은 향후 개편 방안에 있어서 “국어의 경우도 역시 수능 국어수준의 문제보다는 PSAT의 언어논리영역으로 가름하여 평가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와 같은 의견을 남겼다. 같은 논문, 57쪽.

6 민기·박철민, 「공직수행 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시험과목 개선 방안: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4,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7 이형래는 이를 ‘직업문식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9급 공무원 국어시험을 분석했다. 이형래, 「국가 수준 국어/언어 능력 검사의 비판적 검토: 직업문식성 평가로서의 9급 공무원 임용 국어시험 분석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31, 국어교육학회, 2008.

8 임택균·박찬홍·최원호, 「공무원(9급)의 직무에 요구되는 직업 문해력 요인 탐색: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3-3,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22.

9 우리나라 공직 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라 요청되는 인재상에 대해서는 차종석, 「국내기업 핵심인재 경영의 현황과 개선방향: 채용전략을 중심으로」, 『임금연구』 13-1, 경총임금연구센터, 2005, 20쪽.

10 “국어는 평소 수험서를 열심히 봐왔어도 다루어지지 않은 사자성어가 출제돼 응시생들을 당황케 했다. A 응시자는 “한자문제가 2문제 출제됐는데 그중 사자성어를 물어보는 한자문제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문제”라며 “한자를 독음으로 해석해 풀어서 다행이지 이를 모르면 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자 외에도 수능 등 문학작품에서 술하게 다루어졌던 ‘사슴땀정기’가 이번 문학지문으로 등장하였으나 응시생들에게 익숙지 않은 내용이 제시문으로 등장해 배경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풀기가 만만치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비문학은 수능형 기조를 강화해 나감에 따라 이번에도 응시자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수능형 문제가 비문학으

검증하기 위한 문제이기보다 ‘틀리기 위한 문제’ 또는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 등으로 국어시험이 인식되고 있다.¹¹ 2019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생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9급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가 낮아진 영향도 있겠지만, 시험 자체가 암기형 위주로 출제되어 수험생들에게 ‘딴 세상 시험’으로 취급받은 것 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¹²

이런 문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4년 11월 20일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필기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를 현행 지식 암기 위주에서 직무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국어시험은 옳은 외래어 표기나 합성어 구분 등 국어 문법을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으나, 앞으로는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지문 속 정보를 활용해 문제를 풀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이다.¹³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그동안 9급 공무원 시험이 다소 암기 위주로 출제된 데다, 내용도 다른 채용 시험과 동떨어져 ‘갈라파고스화’되다 보니 수험 준비 과정에서 쌓은 지식이 실무에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공무원 국어시험의 민간 채용 호환성 및 직무 연관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출제 기조 전환’은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를 직무 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어 보인다. 즉, 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어 과목에서는 앞으로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¹⁴

이에 따라 사교육계도 움직이고 있다. 공무원 시험 학원에서도 2025년 9급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는 ‘신유형 공략 설명회’를 개최하거나¹⁵ 2025 공무원 시험 출제 기조 전환 대비 ‘실용적 사고력 라이브 특강’을 진행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¹⁶ 김승호 인사혁신처 처장도 직접 노량진 고시촌에서 수험생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¹⁷ 출제 기조 전환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 지난 10년간의 9급 공무원 국어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함으로써 그 출제 경향을 탐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출제 기조의 변환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사고력 위주의 평가로 안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토대로 출제 기조 전환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유형의 9급 공무원 국어시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판적 검토와 해결책 모색을 반복하며 안정화를 시도해야 할 텐데, 본고의 분석 결과가 그런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로 출제됐지만 “지엽적”이라는 평이다. B 응시자는 “비문학이 수능형은 맞다. 하지만 세부적 내용까지 찾아야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시간 소모가 컸다”는 소회를 밝혔다. C 응시자도 “비문학이 수능형으로 출제됐지만 최근 수능 국어문제가 아닌 2010년 전후로 출제된 수능형 문제 정도로 출제됐다”고 밝혔다. 김민수, 「올 지방직·교육청 공무원시험 “지엽적 문제 많아”」, 『법률저널』, 2019.06.15.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69>

11 “네이버 카페 닥공사 등 공시생 커뮤니티에는 “이건 붙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것” “한 문제라도 당락이 결정되는데, 더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돼야 한다” “이런게 공무원 업무랑 무슨 상관” “모두 정답 인정되면 다 같이 점수 오르는 건가” 등 의견이 쏟아졌다.” 문선영, 「“이건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9급 공무원시험 문제 논란」, 『이투데이』, 2021.06.07. <https://www.etoday.co.kr/news/view/2033396>

12 「암기식’ 9급 공무원 국어·영어, 내후년 ‘확 바뀐다」, 『YTN사이언스』, 2023.11.21.

13 광민서, 「2025년부터 ‘암기식’ 9급 공무원 국어·영어시험 바뀐다」, 『연합뉴스』, 2023.11.20.

14 편집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9급 공무원 시험 출제 기조 바뀐다」, 『고시계』 69-1, 고시계사, 2023, 191쪽.

15 여영준, 「공단기, 2025년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신유형 공략 설명회’ 진행」, 『시민일보』, 2024.04.24.

16 장지용, 「2025년부터 9급 공무원, 국어 및 영어시험 출제 기조 전환...메가공무원, ‘이제는 실용적 사고력이다’ 라이브 특강 진행」, 『한국강사신문』, 2024.01.25.

17 이성진, 「김승호 인사처장, 공무원 수험생 만나 애로 등 청취」, 『법률저널』, 2023.12.08.

2. 10년간 9급 공무원 국어시험 출제 경향

2.1. 분석의 영역과 방향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10년간 출제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및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 경쟁임용 필기시험 기출 문항이다. 9급 공무원 시험 개편이 이루어졌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출제된 총 23개 기출 시험 460문항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으며, 여기에는 2014년 사회복지직 9급 국어시험과 방재안전 9급 국어시험, 2015년 사회복지직 9급 국어시험도 포함했다. 460문항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진행했다.

첫 번째 분석의 영역은 ‘암기력’에서 ‘사고력’ 위주의 시험으로 전환한다는 새로운 출제 취지와와의 부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식형 문제와 사고형 문제 비율 검토’와 ‘사고형 문제 내에서의 세부 유형(이해, 추론, 비판) 검토’로 설정했다. 이때 ‘지식형 문제’란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암기형)’하는 유형의 문제를, ‘사고형 문제’는 ‘지문을 통해 추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의 문제를 지칭한다. 사고형 문제는 크게 이해 영역, 추론 영역, 비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구분은 사고력 평가에 있어서 그 유효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행 ‘공직적격성 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의 ‘언어논리’ 영역,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의사소통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영역, ‘법학적성시험(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의 ‘언어이해’ 영역의 것을 참고한 결과이다.

PSAT와 NCS, LEET를 참고했을 때, 여러 가지 층위의 용어로 ‘언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이해 영역에는 ‘정보에 대한 사실적 이해, 개념에 대한 지시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 찾기, 순서 정렬, 주제 찾기’가,

〈표 1〉PSAT 언어논리 영역 체제

구분	내용
언어논리	이해능력: 지문에 대한 사실적 이해
	표현능력: 문맥에 맞는 글쓰기와 수정하기
	추론능력: 지문에 대한 추론적 이해, 연역추론 등
	비판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 분석, 논리강화·약화 등

〈표 2〉NCS 의사소통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영역 체제

구분	세부능력	내용
의사소통능력	문서이해능력	문서의 내용 이해하고 요점 파악하는 능력
	문서작성능력	상황과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전달하는 문서 작성하는 능력
	경청능력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는 능력
	의사표현능력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사실과 의견 구분,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
	문제처리능력	문제 발생 시 사실과 대안 확인, 원인 분석, 대안제시 등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

〈표 3〉LEET 언어이해 영역 체제

구분	내용
언어이해	분석적 이해: 세부 내용 및 정보 파악, 개념의 이해
	추론적 이해: 상황 및 조건의 적용, 숨겨진 전제 파악 등
	비판적 이해: 주장 파악 및 강화·약화 등

추론 영역에는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하기, 원리 적용하기, 빈칸 채우기, 오류 찾아 수정하기(퇴고)’가, 비판 영역에는 ‘정보에 대한 종합적·메타적 사고하기, 글의 구성 이해하기,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찾기, 논박하기’가 해당하며, ‘이해, 추론, 비판’을 통해 언어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력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분석의 영역은 지문이다. 지문은 ‘바탕글’ 또는 ‘제시문’이라고도 하는데, 지식형 문제이든 사고형 문제이든 문항을 출제하는 바탕은 ‘지문’에 있다. 지문에서 어떤 성격의 글을 다루느냐에 따라 그것이 실무 내용 또는 일반 상식과 가지는 거리가 형성된다. 그래서 일반교양 수준¹⁸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담은 지문에

18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4449호, 2024.4.23, 타법개정)을 보면,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제5조)고 되어 있어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기본적으로 ‘일반교양 수준의 지식’을 담아내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

는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내용을 담아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여러 종류의 직렬에 따라 수험생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과 성격은 어떤 특수성보다 보편성을, 전통성보다 동시대성을, 편향성보다 범용성을 지향해야 한다. 지문에 대한 분석은 현재 진행 중인 국가공무원 9급 공무원 국어 시험의 지문이 과연 이런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분석 영역은 문항의 ‘몰음’이다. 흔히 문두(問頭)라고도 하는데, 이는 문항의 질문 부분으로서 문항의 성격을 규정하는 지표이다. 그래서 몰음을 통해 수험생은 해당 문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문을 이해하는 방식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하기도 한다. 몰음은 수험생에게 문제해결에 앞서 문제사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그러기 때문에 몰음은 어느 정도 정형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몰음 분석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는데, 하나는 몰음을 통해 수험생에게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평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얼마나 정형화된 몰음 형식을 통해 ‘평가 내용에 대한 구분’을 명료화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2.2. 지식형 문제와 사고형 문제 비율 분석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식형 문제란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암기형)’하는 유형의 문제를, 사고형 문제는 ‘지문을 통해 추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의 문제이다. 지난 10년간 9급 공무원 국어시험에서 지식형 문제와 사고형 문제의 비율을 문항 수를 기준으로 정리해서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 공무원 9급 국어시험(2013~2022) 지식형 문제와 사고형 문제 비율

문항수	지식형		사고형		
	비율	문항수	비율	문항수	
2013	국가	11	55%	9	45%
	지방	14	70%	6	30%
2014	국가	11	55%	9	45%
	지방	12	60%	8	40%
	사회복지	10	50%	10	50%
	방재안전	12	60%	8	40%
2015	국가	10	50%	10	50%
	지방	13	65%	7	35%
	사회복지	12	60%	8	40%
2016	국가	10	50%	10	50%
	지방	9	45%	11	55%
2017	국가	12	60%	8	40%
	지방	13	65%	7	35%
2018	국가	8	40%	12	60%
	지방	8	40%	12	60%
2019	국가	4	20%	16	80%
	지방	8	40%	12	60%
2020	국가	8	40%	12	60%
	지방	7	35%	13	65%
2021	국가	9	45%	11	55%
	지방	7	35%	13	65%
2022	국가	6	30%	14	70%
	지방	8	40%	12	60%

2013~2022년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국어시험 기출문항을 ‘지식형 문제’와 ‘사고형 문제’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18년을 기점으로 뚜렷한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까지는 2016년(지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식형 문제가 사고형 문제에 비해 많이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지방)에서는 지식형 문제가 출제 비율이 70%에 이르는 등 선행 지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 유형이 국어시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변화의 계기는 9급 등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2017~2018년에는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여러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2018년부터는 이를 반영하여

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C%8B%9C%ED%97%98%EB%A0%B9>

지식형 문제보다 사고형 문제의 문항 출제 비중을 높였다. 그 결과, 2019년(국가)에는 사고형 문제 출제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등 시험의 성격이 급격히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2020년~2022년에서도 사고형 문제의 출제 비율이 60~70%대를 유지하였다. 지식형 문제에서 사고형 문제로의 전환은 현 공무원 시험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일치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긍정적인 전환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고형 문제의 세부 영역에 대한 고민, 사고형 문제와 지식형 문제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체재 마련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인 불만과 요청이 쇄도했을 때 유동적으로 잠시 사고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은 지속적이기보다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3. 사고형 문제의 전체 현황과 세부 유형의 문항 수

2018년부터 사고형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2020년부터는 사고형 문제가 60~70%의 출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사고형 문제를 구성하는 이해, 추론, 비판 영역은 각각 어느 정도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을까? 지난 10년간 9급 공무원 국어시험에 출제된 사고형 문제에서 이해, 추론, 비판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문항 수를 중심으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공무원 9급 국어시험(2013~2022) 사고형 문제 세부 유형 및 문항 수

		사고형 문제		
		이해능력(문항 수)	추론능력(문항 수)	비판능력(문항 수)
2013	국가	7	1	1
	지방	6	0	0
2014	국가	5	2	2
	지방	5	1	2
	사회복지	7	3	0
	방재안전	6	1	1
2015	국가	7	3	0
	지방	6	1	0
	사회복지	7	1	0
2016	국가	7	3	0
	지방	9	2	0

		사고형 문제		
		이해능력(문항 수)	추론능력(문항 수)	비판능력(문항 수)
2017	국가	7	1	0
	지방	5	1	1
2018	국가	9	3	0
	지방	10	2	0
2019	국가	8	6	2
	지방	10	1	1
2020	국가	9	3	0
	지방	10	3	0
2021	국가	5	5	1
	지방	9	4	0
2022	국가	10	3	1
	지방	9	3	0

2018년 이후 사고형 문제 출제 비중이 높아졌지만, 사고형 문제의 하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능력, 추론능력, 비판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균형감 있게 출제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기존의 사고형 문제 유형이 주로 ‘정보에 대한 사실적 이해, 개념에 대한 지시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 찾기, 순서 정렬, 주제 찾기’로 구성되는 ‘이해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에 치중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시험에서는 국가직 시험에서는 추론능력과 비판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 1개씩 출제되었고, 지방직 시험에서는 추론능력과 비판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전혀 출제되지 않았다. 이후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점차 증가하였는데, 추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은 2017년까지 시험별로 1~3개까지 출제되었다. 이에 반해 비판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은 2014년(국가, 지방, 방재안전)과 2017년(지방)을 제외하고는 전혀 찾을 수 없다.

2018년부터는 추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 이전과 달리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9년 국가직 시험의 경우 추론능력 평가 문항이 6개까지 출제되기에 이른다. 추론능력 평가 문항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비판능력의 경우는 2018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18년(국가, 지방)과

2020년(국가, 지방)에는 비판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아예 출제되지 않았고, 2019년(국가)에서 2문항이 출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2019년(지방), 2021년(국가), 2022년(국가)에서 1문항씩 출제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지식형 문제에서 사고형 문제로의 전환 이후 사고형 문제의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의 ‘사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 문제 유형은 ‘이해능력’ 평가 항목에 편중되어 있다. ‘이해능력’이 수험생의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영역임은 확실하지만, 사고력은 이해뿐 아니라 추론능력과 비판능력도 함께 함양되었을 때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해, 추론, 비판의 영역을 조정하여 이해뿐 아니라 추론능력과 비판능력을 따져볼 수 있는 문항 수를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4. 지문의 소재에 따른 유형과 문항 수

현행 공무원 9급 국어시험의 지문 소재를 분석했을 때, 그 유형은 ‘어문 규정’, ‘인문’, ‘사회’, ‘자연과학기술’, ‘문학’, ‘대화문(말하기)’, ‘실용문’, ‘기타(단문)’로 구분할 수 있다. ‘어문 규정’은 한국어 어문 규범을 묻는 문제로 주로 지식형 문제에 속한다. 인문과 사회는 보통 ‘인문사회’로 묶이기도 하지만, 10년간 출제된 문항을 검토한 결과 각각 그 비중이 높은 편이라 인문과 사회를 분리했다. 대신 ‘자연과학’이나 ‘기술’은 따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지만 출제 비중이 매우 낮아서 ‘자연과학기술’로 함께 묶어서 유형화했다. 그 외에 ‘문학’은 통상적으로 ‘인문’에 포함될 수 있지만, 체재상의 독해력(읽기) 부문의 하위 유형으로 독립적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했다. ‘실용문’에는 다양한 형식의 지문이 포함되었는데, 기사, 공문, 선언문, 보고서, 편지, 그래프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기타(단문)’는 지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를 온전한 지문으로 분류하기에는 그 분량이 너무 적은 경우를 지칭하기 위해 설정한 항목이다.

이상의 지문의 분류 기준에 따라 최근 10년간 국어시

험에 나온 지문의 소재별 유형과 문항 수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공무원 9급 국어시험(2013~2022) 지문 소재별 유형 및 문항 수¹⁹

		어문 규정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기술	문학	대화문 (말하기)	없음	실용 문	기타 (단문)
2013	국가	1	2	4	0	2	1	6	3	1
	지방	0	1	0	0	8	0	9	1	1
2014	국가	1	2	0	1	4	2	8	2	0
	지방	2	4	1	0	1	1	9	1	1
	사회 복지	3	2	0	0	5	1	5	1	3
	방재 안전	1	2	1	1	4	0	8	1	2
2015	국가	1	4	0	0	3	0	8	2	2
	지방	0	2	2	0	4	0	8	0	4
	사회 복지	1	4	1	0	4	0	7	2	1
2016	국가	0	3	2	0	5	1	7	0	2
	지방	0	4	2	0	3	1	9	1	0
2017	국가	0	3	0	0	7	0	7	0	3
	지방	1	1	0	3	6	0	3	2	4
2018	국가	2	6	0	0	5	0	3	1	2
	지방	1	2	2	1	5	1	4	1	4
2019	국가	2	6	1	1	6	2	0	0	2
	지방	0	2	2	0	4	1	6	2	3
2020	국가	0	3	2	2	4	2	4	0	3
	지방	1	2	3	1	5	1	6	0	1
2021	국가	1	4	1	1	6	1	3	2	1
	지방	0	3	3	1	6	1	4	1	1
2022	국가	1	3	2	0	4	2	3	3	2
	지방	0	6	1	0	5	1	5	2	0

지문의 소재 유형별 출제 비율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어떤 특정한 방향성 또는 경향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2013년(지방)에서는 ‘문학’ 지문이 8문항이나 출제되기도 했고, 2016년(지방)에서는 지문이 없는 문항이 9개 출제되기도 했다. ‘실용문’의 경우는 1~3문항 정도가 꾸준히 출제된 것에 반해, ‘자연과학기술’과 관련된 지문은 2013년(국가, 지방), 2014년(지방, 사회복지), 2015년(국가, 지방),

¹⁹ 2018년의 경우, ‘문학’ 부문에서 1지문 2문항 문제가 출제되었다.

2016년(국가, 지방), 2017년(국가), 2018년(국가), 2019년(지방), 2022년(국가, 지방)에서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지문은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의 내용과 관련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향성이나 방향성보다 편향성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지문의 유형이나 성격이 시험 출제 때마다 들쭉날쭉한 것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구성된 전반적인 체제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어떤 ‘정보’를 통해 수험생의 어떤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방증 자료이다.

향후에는 지문의 소재를 다양화 하여 여러 영역을 포괄할 수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동향을 담아내는 지문, 인문·사회뿐 아니라 자연과학기술,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를 섭렵할 수 있는 다양한 지문, 선행 지식을 통해 답을 찾기보다 주어진 정보를 통해 실용적인 지식을 추출할 수 있는 지문 등이 요청되는 것이다.

2.5. 유형별 물음 분석

현행 공무원 9급 국어시험의 ‘물음’ 양상을 정리하면 크게 8가지 정도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세부내용이해’이다. 세부내용이해는 정보나 개념에 대한 사실적 이해 및 지시적 의미를 찾아내고, 글의 주제나 특징을 파악하는 능력을 묻는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지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설명을 묻는 경우가 많고, 독특하게 독자의 반응이나 글쓴이의 입장에 대해 탐색하는 물음도 존재한다. “알 수 없는 것은?”과 같이 약간의 추론이 가미된 성격의 물음도 확인할 수 있다. 세부내용이해를 묻는 물음과 관련하여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이해]

- ▶ 다음 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3년 국가 15번)
- ▶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년 지방 13번)

- ▶ 다음 글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년 지방 17번)
- ▶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년 국가 15번)
- ▶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14년 지방 9번)
- ▶ (가)와 (나)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년 방재 19번)
- ▶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5년 국가 8번)
- ▶ 다음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년 국가 17번)
- ▶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년 지방 8번)
- ▶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18년 지방 20번)
- ▶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년 국가 14번)
- ▶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9년 지방 8번)
- ▶ 다음 글쓴이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19년 지방 20번)
- ▶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20년 국가 8번)
- ▶ 다음 작품이 지닌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년 국가 18번)
- ▶ 다음 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년 국가 18번)
- ▶ 다음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은? (21년 지방 18번)

두 번째는 ‘세부내용추론’이다. 세부내용추론은 주어진 정보를 통해 논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정보나 원리, 수정 방향 등을 묻는 물음이다. ‘추리’, ‘추정’, ‘추론’, ‘시사점’ 등과 같은 용어가 섞여 있지만 대부분 주어진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묻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다. 지문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통해 필자의 견해를 묻는 문제도 섞여 있지만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세부내용추론을 묻는 물음과 관련하여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추론]

- ▶ 밑줄 친 바와 같이 말한 이유를 적절히 추리한 것은? (14년 사회복지 20번)
- ▶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년 국가 4번)
- ▶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7년 국가 4번)
- ▶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17년 국가 10번)
- ▶ 밑줄 친 부분의 이유에 대한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18년 지방 3번)
- ▶ (가)와 (나)를 통해서 추정하기 어려운 내용은? (19년 국가 15번)
- ▶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적절히 추론한 것은? (19년 국가 17번)
- ▶ 다음 글에서 추론한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년 지방 19번)
- ▶ 다음 글의 시사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년 국가 19번)
- ▶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없는 것은? (20년 지방 19번)
- ▶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년 국가 20번)
- ▶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21년 지방 20번)

세 번째는 ‘괄호 채우기’이다. 괄호 채우기는 ‘세부내용 추론’과 유사하게 ‘추론 영역’에 속하는 물음이다. 주어진 정보나 지문을 읽고 이를 통해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사실을 적합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것이다. 괄호는 때로는 빈칸 안의 ㉠이나 (가) 등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물음’은 동일한 작업을 수험생에게 요구하고 있다. 괄호 채우기를 요구하는 물음과 관련하여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 채우기]

- ▶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3년 국가 18번)
- ▶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13년 지방 10번)
- ▶ ㉠~㉡에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은? (13년 지방 20번)

- ▶ 다음 글에서 ()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15년 사회복지 10번)
- ▶ ()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15년 사회복지 19번)
- ▶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년 지방 14번)
- ▶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19년 국가 11번)
- ▶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9년 국가 7번)
- ▶ 다음 () 속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년 지방 17번)
- ▶ ㉠에 들어갈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년 국가 15번)
- ▶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년 국가 16번)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년 국가 19번)
- ▶ (가)~(라)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년 지방 16번)
- ▶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년 지방 19번)

네 번째는 ‘글의 전개 순서’를 묻는 물음이다. ‘세부내용 이해’와 유사하게 ‘이해 영역’에 속하는 물음이다. 무작위 순서로 제시된, 적게는 세 개, 많게는 다섯 개의 문단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재배치하는 작업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개 순서’, ‘연결 순서’, ‘논리적 순서’ ‘바르게 배열’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글의 전개 순서를 묻는 물음과 관련하여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글의 전개 순서]

- ▶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3년 국가 14번)
- ▶ 다음 글의 연결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년 국가 11번)
- ▶ 다음을 논리적 순서로 배열한 것은? (15년 국가 5번)
- ▶ 내용의 전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17년 국가 20번)
- ▶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20년 국가 14번)

- 년 지방 18번)
- ▶ ㉠~㉢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21년 국가 11번)

다섯 번째는 ‘중심 내용 찾기’이다. 중심 내용은 주어진 지문이나 문학 작품의 핵심 논지를 묻는 것으로, 이는 물음에서 ‘주제’, ‘주장’, ‘결론’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중심 내용 찾기는 ‘세부내용이해’, ‘글의 전개 순서’와 같이 ‘이해 영역’에 속하는 물음이다. 중심 내용을 묻는 물음과 관련하여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중심 내용 찾기]**
- ▶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년 지방 17번)
 - ▶ 다음 시조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17년 지방 11번)
 - ▶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년 국가 2번)
 - ▶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년 지방 6번)
 - ▶ 다음 글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년 지방 12번)
 - ▶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년 지방 11번)

여섯 번째는 ‘퇴고’이다. 글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거나 수정·보완의 방향성, 고쳐 쓰기의 방안 등을 묻는 물음이다. ‘세부내용추론’이나 ‘괄호 채우기’와 같이 ‘추론 영역’에 속하는 물음이다. 퇴고를 요구하는 물음과 관련하여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퇴고]**
- ▶ 다음은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의 폐해와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한 개요이다.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년 국가 10번)
 - ▶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년 지방 18번)
 - ▶ (가)~(라)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년 국가 3번)

- ▶ 다음 글의 ㉠~㉢에 대한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년 지방 11번)
- ▶ ㉠~㉢의 고쳐 쓰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년 지방 4번)

일곱 번째는 ‘비판(분석)’이다. ‘비판 영역’에 속하는 물음으로 주어진 지문에 대한 분석 결과나 논증 구조를 파악하기를 요구한다. ‘비판 영역’에서 출제된 문항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음’의 종류 또한 몇 개 되지 않는다. 비판(분석)을 요구하는 물음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비판(분석)]**
- ▶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7년 국가 12번)
 - ▶ 다음 글의 논증 구조를 옳게 파악한 것은? (17년 9급 20번)

마지막 물음의 유형은 그 어떤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기타’로 넣었다. 그 종류도 많지 않지만 이해와 추론, 비판의 영역 중 어디에 귀속시킬지 애매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기타]**
- ▶ 다음 발표에서 사용한 전략이 아닌 것은? (14년 국가 19번)
 - ▶ 다음 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17년 9급 17번)

이상 8가지 종류의 물음의 유형을 살펴봤을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문제 유형별 문항의 물음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물론, 동일한 유형의 문제 안에서 물음이 꼭 똑같은 필요는 없지만, 수험생의 문항 유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정형화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의 유형과 문항의 실체가 어긋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컨대, “다음 글쓴

이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19년 지방 20번)과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20년 국가 8번)과 같은 물음은 ‘세부내용이해’에 해당하는 부합형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부합형 문항은 지문의 정보만으로 선지의 합(合)/불합(不合), 일치/불일치, 정(正)/오(誤)를 판단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19년 지방 20번과 20년 국가 8번 문항은 ‘세부내용추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주어진 지문의 정보를 통해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지문의 내용만으로 ‘알 수 있음/없음’으로 판단되는 성격의 문제이다. 물음과 문항의 실체가 가지는 괴리는 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림과 동시에 전반적인 문제 출제의 체재 또한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물음에 대한 일정한 규칙, 적어도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타’에 제시한 물음은 어떤 유형인지 쉽게 파악되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 발표에서 사용한 전략이 아닌 것은?”(14년 국가 19번)을 보면, ‘전략’이 가리키는 말이 상당히 모호하다. 더욱이, 이 전략은 화법과 관련된 선행 지식을 요하며 지문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이해하고 푸는 것인지, 아니면 추론해야 하는지도 드러나지 않는다. 다른 예로 “다음 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17년 9급 17번)과 같은 물음은 시험 문제의 질문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물음 자체가 비문(非文)이며, 수험생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고 싶은지 알 수 없는 물음이다. 새로운 물음을 시도하는 것은 문제 출제의 유연성을 더할 수 있지만, 최소한 물음의 정형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9급 공무원 국어시험의 개선 방안

10년간 9급 공무원 국어시험을 ‘지식형 문제와 사고형 문제의 비율’, ‘사고형 문제의 전체 현황과 세부 유형(이해, 추론, 비판)의 비율’, ‘지문의 소재에 따른 유형과 문항 수’, ‘유형별 물음’의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제기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9급 공무원 국어시험의 체재가 변화하는 출제 기조와 사회적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에서부터 기인한다. 이는 2018년부터 점점 사고형 문제의 비율은 증가했지만, 그에 따라 이해, 추론, 비판 영역의 균형 문제나 지문의 소재 다양화 또는 물음의 정형화된 방식에 대한 고민이 따라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9급 공무원 국어시험은 ‘말하기/듣기/쓰기/읽기’에 ‘기본언어능력’을 추가한 형태의 체재를 따르고 있다. 기본언어능력 영역에서는 맞춤법, 띄어쓰기 등에 대한 국어 지식과 어휘력 및 한자능력을 검증하며, 한국어 어문 규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말하기는 듣기와 함께 ‘화법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문항이 출제되는데, 토론, 발표 등의 방법이나 표준어 발음법, 표준화법을 물으며 이 또한 한국어 어문 규정에 그 기초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 쓰기는 ‘작문력’을 측정하는데, 어법 및 맥락에 따른 바른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방점을 두고 문제를 출제하며, 여기서도 한국어 어문 규정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읽기는 ‘독해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읽기의 지문은 문학 작품이 제시되는 지문과 비문학 지문으로 구분된다. 문학 작품에 대한 문제는 풀이 과정에서 선행 지식의 여부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비문학 지문이 제시되는 경우는 ‘이해’ 위주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렇듯, ‘말하기/듣기/쓰기/읽기’와 ‘기본언어능력’으로 구분되는 체재를 가지는 9급 공무원 국어시험은 대부분 한국어 어문 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두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 중 쓰거나 말하기, 듣기는 작문력이나 화법력에 대한 실제 평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언어능력이나 읽기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체제를 구성하는 하위 구성 요소는 상호간 어느 정도의 배타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런 배타성은 확보되지 않고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문제로서 제 기능을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형 문제의 출제 비중을 높이다보니, 체제의 안정성은 유지되지 못하고 사고형 문제의 출제 방식에 있어서도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기존처럼 ‘말하기/듣기/쓰기/읽기’에 ‘기본언어능력’을 추가한 형태로 9급 공무원 국어시험의 체제를 유지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식 암기 위주에서 직무 능력 중심으로의 개편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제의 하부구조부터 변화시켜야 한다.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체제를 구성하는 하위 유형의 기준을 사고형 문제의 하위 영역에 맞추는 것이다. 즉, ‘말하기/듣기/쓰기/읽기’가 아니라 ‘이해능력’, ‘추론능력’, ‘비판능력’으로 출제의 영역을 재구성하고 그 안에서의 문항 수 비율 조정과 지문 소재의 다양화, ‘물음’의 정형화 등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틀만 별다른 저항 없이 전환할 수 있다면 앞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는 향후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런 변화된 체제는 이미 유사한 형태로 PSAT의 ‘언어논리’ 영역, NCS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영역, LEET의 ‘언어이해’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의 위험 부담을 던 상태로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9급 공무원 국어시험의 체제를 ‘이해능력’, ‘추론능력’, ‘비판능력’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언어능력’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9급 공무

원 국어시험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PSAT은 공직을 수행하기 위한 적격성(aptitude)을, NCS는 국가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competency)을, LEET는 법학에의 적성(eligibility)을 시험의 주된 관심사로 가진다. 그래서 각 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국어’가 아닌 ‘언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PSAT은 9급 공무원 국어시험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지만,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4449호)」 제12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험생들에게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5급 이상 시험)과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6급 및 7급 시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획, 관리, 전문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언어 전반에 대한 역량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과 같이 8급 이하의 시험은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그 출제 수준으로 삼는다. 기초적인 공문서를 읽고 독해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문서를 기안하는 능력은 ‘언어’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범위를 가지는 ‘국어’에 대한 역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어에 대한 기초 지식과 활용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어문규정에 맞게 단어 단위부터 문장, 문단, 한 편의 글까지 완성할 수 있는 능력, 공공언어를 바로 쓰는 법을 아는 능력, 명확하게 지시대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어를 기반에 둔 ‘기본언어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현행 9급 공무원 국어시험에서는 기본언어능력에 대한 평가가 ‘암기’된 ‘선행 지식’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행히 기존의 기출문제 중에서도 그런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7. ㉠~㉣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 오류의 유형으로 ㉠ 서술어와 주어가 서로 호응하지 않는 경우, ㉡ 서술어와의 호응이 필요한 보어가 누락된 경우, ㉢ 서술어와의 호응이 필요한 목적어가 누락된 경우, ㉣ 서술어와 호응이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가 누락된 경우 등이 종종 관찰된다.

- ① ㉠: 내 말의 요점은 지속 가능한 기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자.
- ② ㉡: 나는 이 일의 책임자를 찾는 것보다 내가 직접 되기로 결심했다.
- ③ ㉢: 겁이 많았던 나는 혼자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이 못내 무서워 동행하였다.
- ④ ㉣: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의지하기도 한다.

[2020 국가 7급]

위의 사례는 ‘문장성분’에 대해 묻는 문항이지만 동시에 지문을 통해 원리를 이해하고 이 원리를 실제 사례에 적용시키는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이다. 선행 지식이 없어도 지문에서 간취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 부사어라는 용어에 대한 기초개념만 있으면 문제 풀이에 있어서 따로 높은 수준의 암기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지문도 없이 암기한 내용을 묻는 유형의 문항이 국어시험에 많이 출제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과거 국어시험에 대한 목적이나 시험의 정체성이 한 국어문법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인재를 원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혹은 이러한 어문법 관련 지식이 당시 취업 준비생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보편적 지식 정도로 갖춘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 시험 시간의 제약이나 문제지 지면 제약 등 외부적 요인도 추가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시험 문항의 성립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수험생의 어떤 능력을 평가할 것인가’임은 확실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바가 종합적 ‘사고

능력’이라면 ‘기본언어능력’을 평가하는 현재의 방식에는 분명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지문’의 소재 중 ‘문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9급 공무원 국어시험의 정체성이 ‘언어’보다 구체화된 ‘국어’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국문학에 대한 지문에 대해서도 고민도 필요하다. 문학(literature)은 문해력(literacy)에 그 어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학 지문을 독해하는 능력은 문해력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와 달리 은유와 환유, 반어와 상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서 학설적 대립이나 해석상의 이의(異意)가 있을 수 있고, 이 때문에 기존의 9급 공무원 국어시험에서 문학 지문이 출제될 때에는 그런 학설적 대립이나 해석상의 이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고형보다는 암기형에 가까운 문제 유형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학 지문’에는 문학 작품뿐 아니라 그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문학 장르에 대한 설명문까지 그 범주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19.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몽유록(夢遊錄)은 ‘꿈에서 놀다 온 기록’이라는 뜻으로, 어떤 인물이 꿈에서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만나 특정 사건에 대한 견해를 듣고 현실로 돌아온다는 특징이 있다. 이때 꿈을 꾸인 인물인 몽유자의 역할에 따라 몽유록을 참여자형과 방관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여자형에서는 몽유자가 꿈에서 만난 인물들의 모임에 초대를 받고 토론과 시연에 직접 참여한다. 방관자형에서는 몽유자가 인물들의 모임을 엿볼 뿐 직접 그 모임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16~17세기에 창작되었던 몽유록에는 참여자형이 많다. 참여자형에서는 몽유자와 꿈속 인물들이 동질적인 이념을 공유하고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비판적 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주로 17세기 이후에 창작된 방관자형에서는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

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의 위치에 서 있다. 이 시기의 몽유록이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으로 변모하는 것은 몽유자의 역할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 ①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의 모임에 직접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에 따라 몽유록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
- ② 17세기보다 나중 시기의 몽유록에서는 몽유자가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 ③ 몽유자가 모임의 구경꾼 역할을 하는 몽유록은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 ④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몽유록은 참여자형에 해당한다.

[2023 국가9급]

위 문항은 ‘몽유록(夢遊錄)’에 대한 것으로 특정 문학 장르에 대한 설명을 지문에 싣고 있다. 사전 지식이 없어도 문학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수준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문학 지문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면, 국어와 문학을 9급 공무원 국어시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지로 삼으면서 동시에 지문 소재의 다양화와 사고형 문제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결론

본고에서는 공무원 9급 국어시험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지난 10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국어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9급 공무원 시험 개편이 이루어졌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출제된 총 23개 기출 시험 460문항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본문에서는 ‘지식형 문제와 사고형 문제 비율 검토’와 ‘사고형 문제 내에서의 세부 유형(이해, 추론, 비판) 검토’를

수행하고, 지문의 소재와 물음 또한 그 양상과 유형을 파악했다. 그 결과 여러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9급 공무원 국어시험의 체제가 변화하는 출제 기조와 사회적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에서부터 기인했다고 보았다. 이는 2018년부터 점점 사고형 문제의 비율은 증가했지만, 그에 따라 이해, 추론, 비판 영역의 균형 문제나 지문의 소재 다양화 또는 물음의 정형화된 방식에 대한 고민이 따라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체재인 ‘말하기/듣기/쓰기/읽기’에서 ‘이해능력’, ‘추론능력’, ‘비판능력’으로의 전환을 통해 출제의 영역을 재구성하고 그 안에서의 문항 수 비율 조정과 지문 소재의 다양화, ‘물음’의 정형화 등을 도모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9급 공무원 시험의 정체성은 ‘국어’에 대한 역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암기력이 아닌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본언어능력’과 ‘문학’에 대한 이해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9급 공무원 국어시험(국가직/지방직) 기출문제(2013~2022)

2. 단행본 및 논문

강인호·유동상·백형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과목의 實用性에 관한 연구: 7급 및 9급 일반직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4-1, 한국평화연구학회, 2013.

김승태, 『공무원 채용시험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인사위원회, 2007.

김형성·황성원, 「공무원 채용시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15-2, 한국인사행정학회, 2016.

민기·박철민, 「공직수행 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시험과목 개선 방안: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4,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박영원, 「9급 공무원 공채 시험과목 변경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369, 국회입법조사처, 2012.

박통희·김영아, 「“정책공감”과 사회경제계층: 2013년 9급 공무원 진입장벽 완화정책에 대한 “인지적 정책공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5-1, 한국정책학회, 2016.

백형배·유동상·강인호, 「지방공무원 시험의 실용성(實用性)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5-3,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이성진, 「김승호 인사처장, 공무원 수험생 만나 애로 등 청취」, 『법률저널』, 2023.12.08.

이재완, 「9급 공무원 필기시험 문제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개선방안: 2022년(국가직, 지방직)시험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3-1, 한국행정학회, 2023.

이혁우, 「공무원 시험문제에 대한 타당성 분석: 2021년(국가직, 지방직), 2022년(국가직) 9급 필기시험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1, 한국행정학회, 2022.

이형래, 「국가 수준 국어/영어 능력 검사의 비판적 검토: 직업문식성 평가로서의 9급 공무원 임용 국어시험 분석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31, 국어교육학회, 2008.

임택근·박찬홍·최원호, 「공무원(9급)의 직무에 요구되는 직업 문해력 요인 탐색: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13-3, 한국리터러시학회, 2022.

차종석, 「국내기업 핵심인재 경영의 현황과 개선방향: 채용전략을 중심으로」, 『임금연구』 13-1, 경총임금연구센터, 2005.

3. 기타 자료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4449호, 2024.4.23, 타법개정)

「암기식'9급공무원국어·영어, 내후년'확바뀐다」, 『YTN사이언스』, 2023.11.21.

곽민서, 「2025년부터 '암기식' 9급 공무원 국어·영어시험 바뀐다」, 『연합뉴스』, 2023.11.20.

김민수, 「올 지방직·교육청 공무원시험 “지엽적 문제 많아”」, 『법률저널』, 2019.06.15.

문선영, 「“이건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9급 공무원시험 문제 논란」, 『이투데이』, 2021.06.07.

여영준, 「공단기, 2025년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신유형 공략 설명회' 진행」, 『시민일보』, 2024.04.24.

장지용, 「2025년부터 9급 공무원, 국어 및 영어시험 출제 기조 전환...메가공무원, '이제는 실용적 사고력이다' 라이브 특강 진행」, 『한국강사신문』, 2024.01.25.

편집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9급 공무원 시험 출제기조 바뀐다」, 『고시계』 69-1, 고시계사, 2023.

Abstract

A Study on Trends in the Korean Language Examination for Public Officials(Grade 9) over the Past Decade and Proposals for its Improvement

Shin, Ho-Rim | Ando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ast 10 years of examination questions for the grade 9 public official Korean language examination and to explore the issue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based on this analysis. The specific analysis included a total of 460 questions from 23 past examinations from 2013 to 2022.

The analysis of the past decade's examination questions involved reviewing the ratio between knowledge-based and reasoning-based questions and examining detailed subtypes within the reasoning-based questions, focusing on comprehension, inference, and critique areas. Furthermore, the content and types of passages and questions presented in the examination questions were also investigated. As a result, several issues were identified, stemming primarily from the inability of the grade 9 public official Korean language examination structure to fully encompass the changing trends in examination administration and societal demands. While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reasoning-based questions since 2018 to accommodate societal demands, it signifies that concerns such as balancing comprehension, inference, and critique areas, diversifying passage content, and standardizing question formats were not adequately addressed.

To address these issues, a transition from the existing structure of “speaking/listening/writing/reading” to “comprehension ability,” “inference ability,” and “critique ability” is necessary. This entails reconfiguring the examination areas by setting the three abilities that measure logical thinking as the main components of the structure. With this transition, it would be possible to stabilize adjustments in the proportions of questions per area, diversify passage content, and standardize questions. Particularly, since the identity of the grade 9 public official examination is closely linked to proficiency in “Korean,” measures should be devised to evaluate understanding of “basic Korean language ability” and “Korean literature” in a manner that assesses logical thinking rather than memorization.

Keywords grade 9 public official, Korean language examination, examination trends, improvement strategies, reasoning ability, passage, questions

이 논문은 2024년 5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6월 15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